

# 제10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3시

장소 : 도시복지위원회 회의실

### 심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2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 4면
3.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5면

(15시 개의)

○간사 임은정 안녕하세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의사팀장 임은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심사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입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네 분의  
위원님을 재위촉하여 새로 구성  
되었으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출방식은 위원님들께서 호선  
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선출  
되면 위원장 인사 말씀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시면 되

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후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박철용 위원님께서선출이 끝나면 자리에서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 외 13인으로부터 2023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인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차인성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 위원님들 중에서 유념하셔서 한 분,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 건가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추천될 시에는 거수 투표로 하는 것으

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단독 후보가 추천되시면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예.

○김학만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해외연수 간다, 이것이 좀 잘못하면 오해 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관해서 학회 논문을 옛날에 냈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을 심의위원 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위원장을 처음 할 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진일 위원장님이 그동안 참 잘해 주셨고 김영주 부위원장님이 잘하셨고 그래서 대개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하셨던 분이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나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만 바뀌야 돼요. 그게 내 개인적인 그런 철학인데 계제에 우리 차인성 교수님이 위원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까지 추천을 한다면 김미영 교수님이 부위원장님을 하시면, 그동안에 정진일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김영주 부위원장님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랑 학교에서부터 같이 왔는데 둘이서 차 안에서 오면서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왔었는데, 아무튼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일 위원 저는 동의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저도 위원장님 추천에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은 호선하셔서 같이 이렇게 코워크(co-work) 하시

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일단  
위원장 선출을 마쳐놓고 나서,

○김미영 위원 예. 저는 동의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그리  
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그런  
데 전에 우리 정진일 위원장님  
이 하셨듯이 이게 감투도 아니  
고 머리가 좀 아픈 일 같습니다.  
아픈 일 같은데, 의외로 또  
이렇게 우리 김학만 학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 한 분 자진해서 하실 분 없  
으십니까?

○정진일 위원 머리 아파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나는  
우리 김학만 교수님 추천하려고  
그랬었는데 전화 받으러 나가셨  
네. 다른 분 이의가 없으신가  
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게 임기가 1년입니까, 2  
년입니까? 1년?

○간사 임은정 2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차인성 2년.  
그럼 추천받았으니까 한번 지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으  
로 해서 제가 당 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선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  
의 진행을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차인성 자료들을 아  
마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다 검  
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 우리 부위원장 선출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이  
렇게 제가 임명됐습니다만 하여  
튼 위원님들 잘 모시고서 이 위  
원회가 잘 구성되고 협조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정진일 위원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나요, 아니면 지

명을 하셨나요?

○정진일 위원 지명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지명이요. 그러면 또 이왕 나온 김에 우리 김미영 교수님 하시죠. 저랑도 안면도 없으시고, 한 번 뵈었던 것 같은데, 짜고 칠 것도 없는 같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을 함과 동시에 부위원장 선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유고시에는 대신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영 교수님 함께 돼서 내가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잘 모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위원장 차인성 우리 김학만 교수님 말씀대로 두 사람이 다 그냥 댔습니다.

○김학만 위원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요.

(일동 박수)

죄송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뭐 한 전화가 와 가지고,

○위원장 차인성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미영 교수님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또 이렇게 동의해주셨으니 이 공무국외출장에 해가 가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위원장 차인성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심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 이석)

본건은 동구의회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네 분 이상만 찬성을 하게 되면 의결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으시고 보내드린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인물을 봐주시고 나중에 찬·반 서명란이 있으니깐 거기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은정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연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부탁드립니다.

○간사 임은정 예, 의사팀장 임은정입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출장 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간이며 출장지는 3개국으로 체코와 헝가리, 오스트리아입니다. 출장 대상자는 박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과 공무원 5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출장 경비는 6천 1백여만 원이 소요되며 공무

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전국 의회 국내외 연수 전문업체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장 목적입니다. 선진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우수 정책 및 의회 운영의 실태 견학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안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구정 운영에 접목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 주제별로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요 관심 분야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일차인 4월 18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파리공항을 경유해서 체코 현지시간으로 오후 9시 경에 프라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소 배정을 받은 후 휴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제2일차는 공식 방문지로 우리 구의 산내 곤룡골과 유사한 민간인 학살의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는 프라하 리디체 구의회를 방문하여 추모공원 조성의 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후에는 트램 탑승 체험을 통해서 트램의 대중교통 기능과 도시 균형발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밖에 프라하 구도심 광장과 성당 등 역사적 시설물에 현대적인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 경관을 탐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3일차에는 공식 방문지로 프라하 최대 기술도서관인 국립기술도서관을 방문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구의 제2시립도서관 운영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체코 제2의 도시 브르노로 이동하여 구시청사와 자유광장 등 원도심 옛 건축물의 보존 실태 및 경관 조성으로 관광 상품에 접목한 현장 탐방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4일차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넵네피 선사인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지원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다뉴브강 유람선에 승선하여 수변 환경 및 강변 둔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여가 공간과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는 현장을 탐방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5일차에는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에 해당하는 부다페스트 최대 규모의 중앙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재래시장의 최신 시스템을 견학하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헝가리 역대 왕들의 대관식을 문화콘텐츠로 변모시킨 마차시 성당과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등 지역 문화 탐방 후에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6일차는 오스트리아의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구의 원도심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자 비엔나 신

시청사와 슈테판 성당, 그리고 쉐부른 궁전을 탐방하고 유명 음악가들의 동상이 있는 시립공원을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소제중앙공원 조성에 접목해 역사적 테마가 있는 생활 친화적 공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7일차에는 공식 방문지인 비엔나 바이오 가스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리사이클링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가정에 공급하여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사례를 살펴보고 비엔나 최대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폐쇄된 공항 부지를 신도시로 완성한 스마트시티 아스페른을 방문하여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같은 날 저녁 비엔나 공항을 출발하여 제8일차 되는 다음날, 우리 시간으로 4월 25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외연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행정 사항 추

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의원별 임무 고지 및 역할 분담 시행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위한 특별보안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방문국의 우수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수 결과를 우리 구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 일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출장을 통해 넓어진 시야는 향후 정책 개발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은 거두시고 구정을 위한 투자로 여기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심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일 위원 이 계획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짜신 건가요?

○간사 임은정 예. 저희가 작년부터 11월부터 정책지원관제도 도입이 돼서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관심 분야를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기관방문이랑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정진일 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의원님들께 질문해야 될 건데, 사실은 행정부는 하는 대로만 주로 하잖아요?

○간사 임은정 예.

○정진일 위원 의미가 없는 느낌을 솔직히 말해서 받아요.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의원님들, 의장님도 안 계시고 의원들 아무도 없는데 이 질문 자체

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까도 내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갔다 와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사실 의원님들이 없는데에서 이 질문 자체가, 이것에 대한 질문 자체가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의장님이나 여기 계셔 가지고 우리 질문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나가서, 우리가 결정 내릴 때는 나가셔도 되지만, 아쉬움이 좀 있네요.

○간사 임은정 예. 저희가 심사 대상은 심사할 때 같이 게시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의결할 때만 나가시는 것으로, 다음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하는데 행정, 집행부 분들이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갔다 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소견은 아니라도 의장님이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차인성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 지금 이렇게 공무일정으로 해외연수나 견학 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코로나 동안에 잠시 중단되었고 이제 다시 재개되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역 현안 문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연수나 견학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수 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활용되기 때문에 일정이나 방문국이 얼마나 적합하느냐, 그리고 연수 취지와 목적이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수 일정을

보면 7박 8일 일정인데 워낙 먼 곳이니까,

○김학만 위원 6박 8일.

○부위원장 김미영 이들은 가고 오는데, 예, 6박 8일인가요? 아무튼 가고 오는데 이들이 소비가 되고 한 5일 정도 둘러보는 일정인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프라하의 국립기술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부다페스트의 재래시장, 오스트리아의 쉐부른 궁전 이런 데는요. 진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이거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해외여행 가면 재래시장을 가야만 이 국민성이라든가 그 문화를 알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굉장히 알려진 관광상품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져본다면 정말 이것이 연수 취지와 목적에 잘 부합하느냐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다행히 중간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확정이 안 되어있네요?  
○간사 임은정 노인복지시설도

확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확정이 됐어요? 지금 자료에는 확정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비엔나의 폐기물시설, 바이오 가스시설이나 스마트시티 이런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지금 연수 취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100세 시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선진화된 노인복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도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에코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준비로 이런 곳에 간다는 것, 관찰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후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하

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방안들, 사례들을 모아서 스터디하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것들 질문, 그러면 눈에 좀 보이거든요. 스터디한 것들이 보이고, 정말 가시적으로 성공적인 방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이 연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정말 그런 정책적인 의제들을 발굴하셔서, 직접 구현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일 위원   한마디 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는 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갔다 온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셨거든요, 의회에서. 어떤 그런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내주시면 보고 물어볼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요.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 의원님들이 좀 하셔서 가지고 다음에 가실 때라도 '우리 대충 갔다 오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게, 이거 뭐 올해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가실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난번에는 갔다 와서 저희들이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간사 임은정 예. 확인한 결과 19년도에는 대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갔다 오면 저희가 만약에 어렵게 되면 서면으로라도, 꼭 그 가지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호 위원 예. 이번에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새로운 의회 구성된 이후에 초선 의원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간사 임은정 초선 의원님 다섯 분, 재선 의원님 다섯 분 해서 열 분이십니다.

○박종호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대전 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대전 동구의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연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대전 동구의 현안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나 이런 쪽

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동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사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동에 한밭 교육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대전 동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교로 따지면 대학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분이 어떤 것인가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구에서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좀 판단을 하신 후에 그것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마킹이라 하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얼마만큼 잘 성장했는지를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외출장계획서에 있는 국가들의 지역을 보면 대전 동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차이

가 있고 그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전 동구와 좀 비슷한 여건, 그다음에 대전 동구가 지향해야 될 부분과 관련된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그것과 관련된 곳들로 가셨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녀오셔서 그쪽에 가보신 곳들이 어떤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 어떤 부분을 접목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후에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대전 동구가 갖고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한 강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신 다음에 정말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음번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이

것이 지금 상황이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 사항으로 첨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원안대로 하든가, 안 하든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인가요?

○간사 임은정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추가로 첨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준방문 섭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중순부터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업체 통해서 해도. 그래서 기관방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정이랑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저희 주요 핵심사업인 역점사업, 산내 곤룡골 추모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도서관, 저희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원도심의 소재중앙공원 조성하는 것, 그런 역점사업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기관방문 섭외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의 강점인 그런 역사나 대학이나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수를 진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원래 연수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의원님 되시면, 그래서 외유성을 가지고 갔던 것이 대다수였던 같다고 우리 정진일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다 이것은 여기 오시기 전에 인식하고 왔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태로 보시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박종호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지역적 특성이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관리가 돼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성견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특히 동구에는 지역적으로 활성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소외되거나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체코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가의 장점과 세분화를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적합한 곳은 없었을까, 더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될 만한 선진국을 선정하는 데 꼭 이 나라였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혹시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각 구에 비해서 특별히 더 소외되거나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부각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지금 현재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일까, 나름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하신다면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접목하셔서 추가 연수 일정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위원장 차인성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비슷하고 공감하는 얘기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만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학만 위원 예. 다 똑같은 생각인데 위원장님이 묻고 싶은 질문을 잘했는데 지금 이 자리

가 심의 자리죠, 심의.

○간사 임은정 예.

○김학만 위원 심의해서 의결을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간사 임은정 예.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김학만 위원 기속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간사 임은정 그럼요, 예.

○김학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먼저 전제 조건이 ‘가라, 그런데 아쉽다.’ 이거예요, 지금. 논문심사에 ‘논문도 통과시킬게, 이거 고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후 게재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나요? 이를테면 어린 아이가 ‘아빠, 나 이 장난감 갖고 싶어’ 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사줄 수 없는 부모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다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다, 의회 친화적인 위원님들이고 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해서, 저도 보면 그냥 시간 관계상 내가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동구의 정책의제와 해외연수의 정합성을 좀 제대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녀와서 PT를 분과 위원장별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다 PT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의회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할 일을 많이 시키냐.’, ‘나, 가서 힐링하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분과별로. 위원장님,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심의 사항이니까 조건부로 그것을 부관으로 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끝나고 나서 가부를 하는 상태가 돼서 일곱 명이니까 네 분만 ‘부’가 나오면 다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끔 얘기돼 있더라고요.

○김학만 위원 글썄, 그런데,

○위원장 차인성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인 얘기를 다 해보고 나서 통일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또 최종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만 위원 예.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연수 프로그램의 장소와 연수 일정이나 이것을, 내가 좋게 얘기해서 우리 임은정 간사님이 스토리텔링 만드느라 참고생을 하셨다,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복수의 대안, 적어도 둘 이상의 대안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누굽니까? 청장님도 그렇고 동구가 낙후돼 있는데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무엇이나, 교육이에요, 교육.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나 이것이 옛날에는 원도심이라 여기가 대전여고도 있고 그래서 제일 끝내줬었어요. 그



했는데 지금 이게 저기로 나가다 보니까 내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하면서도 여기 대동3구역 거기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에서 내가 조건을 달았어요. LH 본부장한테 대전여고의 정문 입구를 정비를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것처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안목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학의 정문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담장을 다 설치해 놔요. 그렇게 하고 정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 그런데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양동이 단과대학별로, 종합대학의 경우에 복지대학이라든지 또 소재동이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대학의 정문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서 적어도 동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의 하드웨어 시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지 못할 경우

에는 말하자면 조건을 달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의·의결 사항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냥 아까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됐는 걸.'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하여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네 가지 요건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녀와서 반드시, 그때 제가 위원장 할 때 홈페이지에 게재 하라고 한 것이 사실은 저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대전 시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동구 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플러스 좀 더 발전시키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한번 해보

겠습니다. 제가 어제 KBS 심야 프로그램 중에 '9층시사국'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침 '지방의원 민낯 보고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랄하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거창군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아주 관광 일상으로 다 꾸며 가지고 와 가지고 뉘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해외연수성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그냥 '그래 당신들 좋으니까 갔다 오고 그래.' '수고했어.' 가하고 그냥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단도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서 갔다 오게 의장님도 편하시고 우리 팀장님도 편하시고 저희들도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보니까 심의·의결사항에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한 것까지 전부 다 보고가 돼 있더라

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마 짚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에 '지방의원 민낯 보고서'라면서 뭘 뽑았냐 하면 이 양반들이 수당 인상 요구를 했는데 전국의 수당 인상률 중에서 1위가 울릉군으로 50%가 갔고요. 나머지 2·3·4·5등이 대전이었어요. 대덕구 2등, 동구 3등, 그다음에 중구 4등, 유성구가 5등 이랬어요, 서구 빼놓고. 인상률이 무려 37%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구만 해도 60몇만 원인가 80몇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이렇게 돈을 받고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게 무슨 연수냐, 당신들 걸치레를 위해서 거기 써놔던 데라서 가는 것이 외유성이고 즐기고 놀다 오는 것이 이게 연수를 가서 과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당신들 한 일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15분간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신랄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품위, 성실, 공공이익 세 가지를 가지고서 아주 신랄하게 했는데 너무도 공감

가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이 되자마자 몇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아마 대전 시내에 있는, 우리 정진일 위원장님도 지금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기자들 몇 분이서 관심을 갖고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어느 정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끔 해 주신 내용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왔는데 무한적으로 막가자, 가자 그랬으면 제가 한번 반기를 들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섯 분 의견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다녀오는 것이 팀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수적인 대안이 있다든가 일정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변혁을 가져와서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걸치레가 아닌 이런 쪽으로 연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임은정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너무 안일한 계획을... 나름은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의원님들과 정말 머리를 쥐어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품위 있고 성실하고 공공 이익이 반영되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역사나 교육에 관계된 그런 일정을 짜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19년 회의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여행경비가 400 얼마 나왔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2개나 3개의 복수에 대한 여행사에서 받은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이것을 한 거냐 그랬더니 단독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

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것도, 아까 김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모든 면을 가지고 하나가 아닌 둘, 셋을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최선의 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따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남들한테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은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사 임은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성 그러면 김학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한번 사인하기 전에, 가결이니 부결이니 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끼리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의견에 따라서 그냥 받고 말까요? 예. 말씀하시죠.

○김영주 위원 또 하나의 요청이 있다면요. 우리가 연수를 간다는 본질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 김에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원래 본질은 연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상 필요한 연수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접목하고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연수이기 때문이에요. 가는 김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여행 삼아서 가시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저 개인적인 견해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을지병원이 굉장히 크고 잘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차를 운행하는 것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지하의 주차장 통로를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인 요청이 있다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연수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수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집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해서 가·부결을 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것을 부결이니 가결이니를 선포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영주 위원 개인적으로 이미 만들어져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도 오셔서 이렇게 이런 피드백을 하신다고 하고 이러면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 차인성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동구의 정책 의지가 담길 수 있는 교육이 됐든 어떤 다른 인프라

가 됐든 담길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다시 해서 이 여행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꼭 다녀와서 보고서를 해라,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를 해라, 우리 정진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음에 이런 진행을 할 적에 앞으로는 복수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안에다 또 다르게 필요한 것이 있으실까요? 세 부적으로.

○정진일 위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학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제 가죠? 이게.

○간사 임은정 저희가 지금 예정은 4월,

○위원장 차인성 굉장히 촉박하네,

○김학만 위원 이게 지금 첫 번째 안건은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담아서, 보완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기속력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

○간사 임은정 예. 1안은 그럴 습니다.

○김학만 위원 1안은 그래요?

○간사 임은정 저희가 1월 중순부터 기관 섭외는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기관을 바꾸려면 또 섭외하기가,

○김학만 위원 그럼 팀장님, 사실은 어렵게 가야지 기억에 오래 남긴 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가면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봤자 담당 공무원분들만 힘들고 더 이상, 의원님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위원장님 되신 기념으로, 제 생각은 그냥 가결을 시켜주고 다만 조건부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그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 차후에 여러 가지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정진일 위원 하나 더 붙인다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은 발령 나면 다음 의원들은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4년 시청,구청 다 출입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조건부라는 말속에서 정말, 사실은 오늘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어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가부 표시할 때만 나가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를 의원님들이 숙지하시고 그것을 느껴서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

○김영주 위원 예전에는 계셨던...

○정진일 위원 아니요, 맞아요. 투표할 때만 나가셨어요.

○김영주 위원 예. 투표할 때만 나가셨거든요.

○정진일 위원 예.

○김영주 위원 예전에는 계셨어요.

○정진일 위원 그랬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개인적인 결정을 좀 내리고 개인의 의견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했는데 안 간다고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또 계획서 짜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차인성 또 다른 분들도 의견 말씀하시죠. 나머지 세 분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박종호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국외출장을 계획하시는 과정에서 계획서에 대한 심의 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최종 승인하는 그런 절차는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계획서 안을 저희가 보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짜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는 안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하는 데 제일 걱정이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비행기표 이런 것을 다 예매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간사 임은정 비행기표는 아직 예매가 안 된 상태고요.

○박종호 위원 예.

○간사 임은정 사전예약이라,

○위원장 차인성 그렇죠.

○박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정 짜시면서 계획하셨던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차라리 섭외나 이런 것 전에 한 번 더, 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일단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 차인성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추후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을 놓고서 심의한다고 가봐야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숫자를 다 파악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뭉클 짚어내서 의회에 의견을 얘기하고 이럴 정도는 안 되듯이 이미 많은 사항이 결정돼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몰라도 해외 같은 선진국들은 서로 어떤 조약을 맺든가 방문하는 의사 표명했을 적에 함부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19년도에도 했었는데 또다시 반복돼서, 바뀌시다 보니까 왔는데 그것을 하여튼 기록으로 완전히 남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적에 부메랑을 맞지 않도록 서로 감싸고 서로 도우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박종호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또 절차가, 이게 심의·의결기구인데 그 절차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사회나 우리 운영위원회 같은 것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하거든요. 그럴 때 회의할 때 전차 회의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보고하고 회의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또 가실 거잖아요? 내년도에 가실 거면 또 이런 심의·회의를 거치는데,

○김학만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김미영 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고 이러한 결과를 적용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하는 것들이 보고가 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견을, 출장을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차인성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예. 전년도에 대한 연수 평가 결과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된다면 훨씬,

○김학만 위원 4월 17일이라고요?

○간사 임은정 4월 18일입니다.

○김학만 위원 4월 18일날 출발한다고요?

○간사 임은정 예.

○김영주 위원 얼마 안 남았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은 얼마 안 남아서,

○김학만 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것 같아요.

○김학만 위원 오늘이 17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간사 임은정 예.

○위원장 차인성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이 언제입니까?

○간사 임은정 15일 이내에,

○위원장 차인성 15일 이내.

○간사 임은정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그러면 4월

말 정도에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학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PPT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하여튼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시고 또 그런 것도 사후 보고서도 한번 같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그게 많은 해소방안이 될 테죠. 그래서 ‘과연, 승인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임은정 알겠습니다. 19년도에 정진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보고를 누구한테 드렸어요?

○정진일 위원 저희들이 받았어요.

○김영주 위원 받았어요.

○정진일 위원 의장님이 직접,

○김영주 위원 직접 받았어요, 의장님한테.

○위원장 차인성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이번에도 한 번 해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간사 임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진일 위원 하나 덧붙이자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열심히 해도 의원님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제제시를 했을 때 안되겠다는 생각이라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의원님들. 5개 구 의원님들 돌아다니며 다 만나면 사적인,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공적으로 말은 못 하시더라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와서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긴장감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친한 친구들 많아요, 의원님들. 그냥 사적인 얘기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

로 우리가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나갈 때 이런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암만 열심히 얘기해 봤자 의미 없다는 생각을 솔직히 머릿속에서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학만 위원 우리 정진일 위원장님이 애정이 많으셔서 가지고, 사실은 조금 늦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정진일 위원장님 고생했다고 박수를 한번 치는 것이, 잊어버렸었는데... 박수 한 번 쳐줄까요?

(일동 박수)

○위원장 차인성 그간 더한 것도 해 주시고,

○김학만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요새 분위기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보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재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재심의를 거치는 것도 사실은 요즘 상황에서는 쾩

장히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분위기가 ‘그냥 동구도 통과됐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건데,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게 맞는지. 혹시 디펜스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한번 국장님 의견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 지금 위원님들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김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동구의회가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 또 금년 한 2월달, 3월달에 의

정비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비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출장연수 관련해서 오늘 심의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여러 가지 대안 주신 연수 내용이라든가 그런 보완은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출발하기 한 달 전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전이라도 미리 개최해서 연수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19년도에도 갔다 왔었지만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PPT 식으로라도 해서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에, 출발 일정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관련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일정상의 큰 틀에 있어서는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해외 방문하는 기관들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좀 더 잘 해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학만 위원 그렇다면 제가 미안해요, 말이 좀 많아서. 저희 위원장님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의회사무국에서 담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심의가 됐다. 그런데 의결은 ‘보류’가 됐다. 다만, 그 의결은 우리 정진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이

렇게 정리를 하면 정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결 방법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은 어떠실까 하나의 대안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정진일 위원 그리고 투표용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다 제 이름 쓰게 돼 있잖아요.

○간사 임은정 예.

○정진일 위원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약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 이름 쓰고 내가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다 기록에 남아있을 건데,

○김학만 위원 소신, 소신투표 하라고,

○정진일 위원 소신투표를 못하는... 이걸 좀 문제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학만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소신투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

○위원장 차인성 예. 우리 김

영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간사 임은정 참고로 위원님들, 회의록에 녹음이 되려면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되거든요.  
○정진일 위원 그래서,  
○간사 임은정 좀 번거로우셔도 마이크를,  
○정진일 위원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 했네, 목소리만 큰 줄 알고.  
○위원장 차인성 김영주 위원님 하실 말씀 아까 있다고,  
○김영주 위원 예. 지금 연수 일정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연수에 부합되는 것이다 또 되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촉박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또 재투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번 처음 의회가 시작돼서 하시다 보니까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또 하는 것은 어떤까 싶어요.  
○위원장 차인성 그런데 그 얘기가, 두 분 얘기가 거의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우리 김학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쟁의 의미, 또 진지하게 한 번 더 검토의 의미, 이런 것을 담아서 이번에는 부결이고 추후에 다시 통과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차피는 하되,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거의 뭐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종호 위원 저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의원 구성이 초선 5, 그다음에 재선 5, 5 대 5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선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을 넓히는 측면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정 자체도 몇몇 부분을 빼놓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심의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의원님들께서 한 번쯤 더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차인성 김미영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시죠.

○부위원장 김미영 보면 지금 이게 일정이 너무... 당장 한 달 후의 일정이니까 수정·보완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임은정 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제가 요청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차인성 국장님 말씀대로, 의사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꼭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만 위원 이렇게 정리하죠. 제가 우리 여기에서는 심의

의결 단계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들 얘기가 가결을 하되 아까 의사국장님이 얘기한 보완된 사항은 위원장님의 확인을 받도록 할 것, 이 정도의 선에서 가결 시켜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좀 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차인성 정진일 위원님 어떠신가요? 괜찮으세요?

○정진일 위원 저는 사실은 뭐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한 달 놓고 하는 것은 빨리 해 달라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았나, 너네 검토할 시간 안 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가실 분들도 아닌데. 조건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부, 갔다 와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갔다 온 것을 보고해 주든 어떤 방법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가요, 지금

제가. 이거 각자의 소견을 소신껏 얘기 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찬성을 이름 썼으면 다 이게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한 것 의원님들 다 알 건데, 나중에.

○위원장 차인성 그거야 뭐 어떻게습니까. 의원들한테 우리가 뭐...

○김학만 위원 심의록에, 회의록에 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각자 사인해요? 어떻게,

○간사 임은정 거기 찬·반 여부에 해 주시면 그것은 회의록에 공개가 안 되거든요.

○김학만 위원 아니, 이거 사인해 주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회의가.

○간사 임은정 예.

○위원장 차인성 저는 아까 의사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적어도 한 2~3개월 전에는, 이런 정도에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를 인지하셨다는 것이 내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게 정성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찌 보면 이게 한 달 이렇게 남기고 할

애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재경 예. 위원님들께서도 수년간 심의위원회를 참석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가시는 것들에 대해 수많은 심의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도 언뜻 사석에서 몇 달 안 남았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도 처음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해보니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고귀한 말씀들이 지금 상당히 제 가슴에 와닿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나머지 있는 직원들은 계속 의회에 오래 근무를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월 13일부터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 가지고 의회 직원들은 거의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돼 있고 계제에 또 이런 심의위원회가 처음 열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귀한 의견들은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른 직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새겨서 다음 회의 때, 심의 때는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도 오래됐는데, 다섯 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 봤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정책의 의제라든가 아니면 일정 장소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보완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보고 사인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냥보다는 어떤 동구의

정책의제나 이런 것이 많이 담기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계획서에도 나갈 수 있는 일정이나 장소도 한번 손 볼 수 있는 것은 손 좀 봐주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서 어렵지만 한번 다시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꼭 보고사항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조건이다, 이러한 사항 꼭 다뤄주시는 의미로 제가 그 사안을 꾸미시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서 와서 사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인성 그러면 우리 질의나 뭐 다른 의견은 없고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심사 의결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통칭해서 한번 사인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예.

○김영주 위원 사인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최후 사인을 하신다는 의견이 아닌가요?



○위원장 차인성 뭐 그러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왜냐하면 위원  
님들이 다 사인해야 되는 기본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차인성 예.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혼자  
서 하기에는...

○김학만 위원 아니, 여기는  
최종적인,

○정진일 위원 여기에서는 결  
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 차인성 그러면 찬성·  
반대에다가 이름을 쓰는 게 아  
니라,

○부위원장 김미영 서명.

○위원장 차인성 뭐 그냥, 서  
명, 서명도 정진일 위원님 말씀  
대로 부담 가면 서명을 하지 말  
고 그냥 '찬성합니다' '반대합니  
다' 이렇게 쓰시는 것은 또 어  
때요? 이름은 안 써도 상관없  
죠?

○정진일 위원 찬성·반대에다  
가 동그라미만 치면 될 것 아니  
예요.

○위원장 차인성 그래요? 그래  
도 됩니까? 팀장님.

○간사 임은정 이름을,

○위원장 차인성 이름을 쓰는  
게,

○간사 임은정 이름을 쓰는 것  
이 원칙인데요.

○김학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심사 방법, 의결  
할 사항, 찬성·반대, 그다음에  
우리 여기 심사기준표가 있잖아  
요.

○간사 임은정 예.

○김학만 위원 이 기준을 우리  
가 체크해요?

○간사 임은정 심사기준표는  
심사하시는 것에 참고하시는 내  
용이십니다.

○김학만 위원 심사의견을 그  
냥 '적합함', '부적합함',

○위원장 차인성 아니, 아까  
말대로 그런 조건부로 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그러  
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작성 한번 해  
보시죠.

(심사의견서 작성 및 심사의결

서 찬반 서명)

○김영주 위원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같이 설명도 하셨고 또 의미가 있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가결할 때는 나가셨고요. 다녀온 이후에 피드백을 직접 발표도 하시고 또 보고서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후에, 기본 했었던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발족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요청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함께 의원님들과, 가서야 할 의원님들이 다 오실 수 없다면 그래도 몇몇 분이라도 오셔서 왜 가야 되는지, 또 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직접 발표도 해 주시고 저희한테 설득력을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또 발표를 해 주시면, 당연히 요청을 드렸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임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성 심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 제3항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은 찬성 6분,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던 것이 좀 더 알찬 연수가 되라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미로 부여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도 하여튼 고마움을 표하고요.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인성 김미영 정진일 김학만  
김영주 박종호 박철용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국장	윤재경
의사팀장	임은정